

주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아세르 인트레이터

모든 사람이 이미 완전하다면, 그 어떤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계 21:4). 그 때까지 세상에는 많은 악이 있습니다. 사람이 더 의로워지고자 노력할수록, 악도 더욱 거슬러 반응하여 더 큰 고통을 줍니다. 우리의 운명은 예수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아께서 고난 당하셨듯, 우리도 고난 당할 것입니다.

고후 1:5, 7

메시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메시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앎이라

사람들은 서로 상처를 줍니다. 사랑 가운데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줄 때, 거기에는 고통이 수반됩니다. 사랑의 한 특질은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전 13:4). 우리는 신비스러운 모양으로 예수아께서 느끼셨던 것과 똑 같은 고통을 나누고 거기에 참여합니다. 예수아께서는 다른 이들의 고통과 죄, 역기능을 가져 가사 고통 당하셨습니다.

사 53:4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세워주며,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고통을 느끼고, 복음의 진리를 제시할 때 거절당하는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은 예수아의 대속의 사랑을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골 1:24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메시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통의 자리에서 예수아와 친밀함을 나눈다는 것은 절묘한 특권입니다. 그것은 예수아와 함께 귀중하고 상호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빌 3:10

내가 메시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

오직 예수아와 함께 고난 당함으로만 예수아와의 교제와 친밀함의 지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아를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아를 위해 고난 당할 수도 있습니다 (빌 1:29).

벧전 4:13

오히려 너희가 메시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아께서는 먼저 고통 당하신 후에 영광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예수아의 고난에 참여하는 만큼,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함께 누릴 것입니다 (롬 8:17-18). 고난을 위한 고난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영원한 기쁨을 인해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아처럼 살기를 추구합니다 (눅 9:23, 히 12:2).

회개: 더 많이 아니면 더 조금?

-길 아프리알(Gil Afriat)

영적 성숙은 더 거룩하고 죄는 더 적은 것으로 표현될 것이지만, 더 적게 회개하는 것으로 표현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이 더 커질수록, 우리의 죄에 대한 자각과 민감도 커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더 많은 빛을 주실수록, 우리는 전에는 보지 못했거나 무시했던 죄를 보게 됩니다. 전에는 작거나 중요하지 않았던 죄의 심각성을 느끼게 됩니다.

역설적이지만 죄를 덜 지을수록, 우리는 더 많이 회개하게 됩니다.

언젠가 저는 어떤 설교자가 자신이 이제 죄를 덜 짓게 되어 덜 회개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성적 부도덕을 심각하게 탐닉해 것이 드러났습니다. 영적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속게 만듭니다. 성결 속의 진정한 영적 성장에는 겸손이 요구되며, 그에 의해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되고, 그분의 거룩하심에 관점에서 우리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다.

알론의 유죄 판결

이번 주에 유명한 카리스마의 모티 알론(Moti Alon) 랍비가 성추행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은행장 후보 두 사람(프란켈 Frankel 과 리데르만 Liderman)이 부패 혐의로 행장 후보에서 사퇴한 지 일주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나라 전역에서 세속적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모두에 대하여 진실성의 가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시위

-이집트성서공회 라메즈 아탈라(Ramez Atallah)

7 월 26 일, 국방장관의 청원에 대한 대응으로 약 400 만이 무슬림 형제단의 난폭하고 방해적인 행동에 반대하며 그들의 결속력을 보여주기 위해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놀랍게도 폭행 사건이나 쯤도독질, 여성에 대한 성추행은 거의 알려진 바 없습니다.

CNN 과 알 자지라(Al Jazeera) 및 대부분의 서방 언론은,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수백만 명의 시위자들을 보여주는 대신, 모르시를 지지하는 시위에서 수만 명의 성난 시위자들과 다치고 죽은 희생자들의 쇼킹한 사진에만 카메라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아주 선별적인 관점만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과는 반대로, 무슬림 형제단이 “평화로운 시위자들”이라는 주장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위 현장 근처에서 걸어가거나 차를 몰고 가는 불운을 겪게 되는 사람은 목숨을 그들의 손에 맡기는 꼴입니다.

이집트 사람들 대부분이 무슬림 형제단을 경멸함에도 불구하고, 이집트가 경찰이나 군부로 넘어가는 것을 아주 많이 반대하고 있으며 보안군은 무슬림 형제단의 선동가들에 대한 대응을 자제하도록 압력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시민 국가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